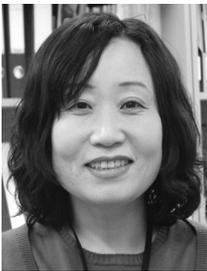


“Scientists : Problem Solvers!”

정혜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소)



약 한달 전쯤 여성과학자 컬럼 의뢰를 받았을 때 ‘여성’과학자란 말을 의식하지 않고 써도 된다는 얘기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쓰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비교적 쉽게 칼럼을 쓰겠다고 했다. 며칠 후 의뢰하신 분이 메일을 보내셔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게재되었던 칼럼을 읽어보라며 웹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셨다. 칼럼을 몇 편 읽고 난 후,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여성’과학자에 대한 글을 써야 하나보다! 이젠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보다 훨씬 힘든 숙제를 하나 떠 안은 꼴이었다.

과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 나름대로 확고한 삶의 방식이 있지만,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니, 이야기가 도저히 정리되지 않았다. 글을 의뢰하신 분은 ‘나는 여자다’ 라는 글을 이미 쓰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느꼈었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로서 느끼는 희열에 대해 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 과학자로서 실험을 설계하고, 토론하고, 시행한 후, 실제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살아가는데 남성과 다른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었다. 젊은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을 볼 때 나 자신이 아버지보다는 엄마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다른 점인가? 집에는 더 어린 진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 까지 실험실에 있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데도 분명 남녀 차이는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남녀 조상이 더불어 만들어 왔던 전통과, 최근 약 100년 동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남녀간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아직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남성에게 비해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여성이 가장 크게 갈등을 겪고 중도에 자신의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육아 문제일 것이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아빠라면, 아이를 키우는 축복되고 소중한 일에 ‘문제’라는 말을 붙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것이다.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니,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또 좋아져야 한다. 더불어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과 전업 주부(主婦/主夫)의 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남자도 여자와 성질은 조금 다를 지 모르나, 남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좌절감도 많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보다 개인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성과학자로 사는 것이 남성과학자보다 더 어려울 것도 없지만, 더 어렵다면 그 만큼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면 된다. 바꿀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묘미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희열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졸업하는 여학생을 볼 때면 ‘취직도 좋지만 시집도 가야지’ 말하며 스스로를 보수 구세력이라 칭하는 동료 남성 과학자들을 개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가장 많이 과학자의 성별에 대해 생각해 본 것 같다. 역시 연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칼럼을 쓰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더 논리적으로 그들을 개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젠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금도 열심히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느끼고, 그 매력에 이끌려 이공계가 홀대를 받아도 곳곳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여성과학자 아니 더 넓게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정당하게 노력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젊은 과학도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생활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들이 학업을 끝낸 후 또다시 몇 년씩 소모적인 기다림을 겪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과학자들이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업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들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과학자는 어려운 과제를 보면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희망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